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Writer

(사)한국포장협회

Contents

- I. 서론
- II. PET필름 수급 동향
- III. NYLON필름 수급 동향

I. 서론

(사)한국포장협회는 2019년 결산을 기준으로 SKC(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케미칼, 효성화학(주) 등을 대상으로 PET필름 생산수급 동향을 조사해보았다.

이와 함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효성화학(주)의 NYLON필름 생산수급 동향과 함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II. PET필름 수급 동향

PET필름은 식품포장용에서 전자재료(광학)용까지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PET필름시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인 SKC(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케미칼, 효성화학(주)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부 수요가 둔화됐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간편식 등 식품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 5월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SKC(주)는 광학용, 포장용, 산업용 등 다양한 PET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최대 PET필름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SKC는 12개 라인에서 13만 5,600톤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출 5

[표 1] PET필름 수급 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2	135,600	55,000	81,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9	87,600	36,000	51,000
(주)화승케미칼	1	15,000	4,000	11,000
효성화학(주)	3	56,400	5,500	49,000

만 5,000톤, 내수 8만 1,000톤을 공급했다.

최근 SKC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재활용 가능 PET병 포장재인 'SKC 에코라벨'과 생분해 소재 중심의 친환경 소재 사업을 내세우고 친환경경영에 나섰다. 'SKC 에코라벨' 등 친환경사업을 확대하고 강도를 강화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고강도 PBAT 관련 기술을 이전 받아 양산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기업연대 '플라스틱쓰레기 제거연합(AEPW)'에 가입하는 등 환경친화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C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각종 환경 규제로 PET필름시장을 비롯한 플라스틱산업 전반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며 "친환경경영을 돌파구로 삼아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산업자재, 화학소재·필름, 전자재료, 패션·아웃도어 제품을 생산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9개 PET필름 라인에서 연간 8만 7,600톤의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출 3만 6,000톤, 내수 5만 1,000톤을 공급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PET필름시장은 여전히 저가 수입산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IT, 반도체, 2차 전지 등 산업용 PET필름시장이 좋지 않아 시장 전체가 침체기라 할 수 있다"며 "다만 포장용 PET필름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경우, PET필름 생산량의 대부분이 산업용으로, 포장용은 10~20%에 불과하다.

화승케미칼은 충남 아산에 있는 C&D 중앙연구소를 통

해 필름사업과 함께 신발 접착제, 자동차 코팅제 사업 등 화학사업을 더욱 강화해 화학전문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화승케미칼은 1개 라인에서 1만 5,000톤의 PET필름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시장에 1만 2,000톤, 해외시장에 4,000톤의 PET필름을 공급했다.

화승케미칼 관계자는 "PET필름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며 "해외 수출도 원활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고 PET필름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효성그룹의 화학사업부가 분할된 효성화학(주)은 3개 PET필름 라인에서 5만 6,4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 4만 9,000톤, 해외에 5,500톤을 공급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산업 침체 영향으로 전자기기, 자동차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산업용 고객들이 3월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했

다”며 “7월부터 '20.2Q 대비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거나 언제 정상화 될지는 미지수이다. 해외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추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포장용 PET필름시장은 산업용 대비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효성화학의 경우, 포장용 PET필름은 15~20%를 차지해 전체 수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라고 밝혔다.

III. NYLON필름 수급 동향

국내 NYLON필름시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효성화학(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지난해 2개 생산라인에서 1만톤의 NYLON필름을 생산, 이 가운데 수출 4,000톤, 내수 6,000톤 가량을 시장에 공급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 관계자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와 국내기업들은 여전히 어

[표 2] Nylon필름의 수급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2	10,000	4,000	6,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	8,400	4,800	3,600
(주)효성화학	2	12,000	5,400	4,800

려운 상황이다”라며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포장용 나일론필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대비 감소 추세를 예상했으나 포장용 필름 수요가 늘어나 유지는 하고 있다. 선방 중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지난해 2개 라인에서 총 8,400톤의 NYLON필름을 생산했다. 수출용은 4,800톤, 국내용은 3,600톤을 기록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나일론시장은 지속적으로 나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발발로 연초에 한두 달 가량 중국산 저가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중국-미국 간 무역전쟁으로 미주 수출량

이 늘어난 것이 희망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효성화학은 식품 포장용, 제약용 등으로 쓰이는 NYLON필름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동사는 2개 라인에서 연간 1만 2,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출 5,400톤, 내수 4,800톤을 공급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NYLON 필름시장은 여전히 공급량 초과로 경쟁이 심화 중”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 증가로 외식문화가 감소되고 가정식 포장용 필름의 수요가 증가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각국에서도 식품관련 공장은 제1순위로 가동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NYLON 필름 수요는 보험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